

조승환 해수부 장관, 제11회 장관배 가족사랑낙시대회 및 어린이낙시안전체험교실 개최

-안전하고 건강한 낙시문화 조성 당부
- 우수낙시터 지정 등 쾌적한 낙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(일) 충남 공주시 소재 자연농원낙시터에서 ‘제11회 해양수산부장관배 가족사랑낙시대회 및 어린이낙시안전체험교실’을 개최할 계획이다.

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, 가족 중심의 낙시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‘전국민물낙시대회’에서 ‘가족사랑낙시대회’로 명칭이 변경되었다.

이번 대회에는 가족사랑낙시대회 400여 명과 어린이낙시안전체험교실* 200여 명(보호자 포함) 등 약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, 구멍뗌목 가상현실 체험, 자석 물고기잡이, 친환경 가방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운영될 계획이다.

* 낙시 원리, 구멍조끼 착용법 및 구멍한 투척법, 낙시대 설치 방법 등

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“가족사랑낙시대회 및 어린이낙시안전체험교실이 안전하고 건강한 낙시문화를 조성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”라며, “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낙시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‘환경의 파수꾼’이 되어주시면 좋겠다”라고 당부할 예정이다.

한편, 해양수산부는 우수낙시터 지정과 낙시복합타운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낙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실 수산자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완홍 (044-200-5538)